

작년 한 해, 'P.I.R.A.M 국어 개념편' 교재로 공부하던 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피램 국어 끝난 후엔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피램 국어와 병행할 강의/교재 추천해주세요!”

독학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P.I.R.A.M 국어 개념편'의 특성상 후속 교재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던 다른 기출문제집을 권하곤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개념편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기출 지문에 계속해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던 저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P.I.R.A.M 국어 개념편의 후속 기출문제집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10개년 전 지문'을 목표로 말이죠.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독학서와 비슷한 퀄리티의 해설을 '10개년 전 지문'에 만든다는 건 저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겠다는 소리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에, 차분하게 해설 작업을 시작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P.I.R.A.M 국어 기출문제집'은 학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Daily 버전'입니다. 이 교재는 'P.I.R.A.M 국어 개념편'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10개년 기출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개념편에 수록된 지문들까지 포함하여 10개년 전 지문을 다룹니다. 엄청난 페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기에, 3권으로 나누어서 출판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Day1, Day2...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념편으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내용 설명도 앞쪽에 들어갈 겁니다.

다른 하나는 '개념편 워크북'입니다. 이미 출판된 'P.I.R.A.M 국어 개념편'에도 10개년 기출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출제된 모든 지문 중 일부만을 다루었습니다. 모두 다루면 페이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니까요. '개념편 워크북'에서는 개념편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지문들을 모두 다룹니다. 엄청난 지문 수를 감당해야 하기에 본교재만큼 자세한 개념 설명은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와 해설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목차는 개념편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개념편의 복습용 교재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위의 두 가지 버전 중 'Daily 버전'에 해당합니다. 본인에게 더 필요한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설지와외의 사고 비교'입니다. 단순히 '왜' 답이 그것인지를 넘어서, '어떻게' 읽고 생각해야 그 답을 고를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평가원이 요구하는 '필연적인 사고'를 통해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출문제 공부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교재가 그 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재의 사용법	008p
생각의 틀 정리	
1. 비문학(독서) 생각의 틀	012p
2. 문학 생각의 틀	015p
기출문제 풀이	019p
교재를 마무리한 후 - 스스로 하는 기출분석	191p

지문 목차 - 기출문제집 1권

각 Day별로 어떤 지문이 있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학습 계획을 짜거나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DAY 1 020p

- 비문학 : [사회] 2011.06 [32~35] '광고 효과'
 [인문] 2011.09 [25~27] '독서'
 [기술] 2011.09 [48~50] '가스 센서'
 문학 : [현대사+수필] 2019.06 [27~31] '휴전선, 우포늪 악재, 주을온천행'
 [현대소설] 2020.06 [16~18] '토지'
 [현대시 + 고전시가] 2011.09 [13~18] '길, 적막강산, 단가육장'

DAY 2 032p

- 비문학 : [과학] 2012.11 [47~50] '불확정성 원리'
 [언어] 2011.11 [37~39] '합성어'
 [인문] 2020.06 [19~22] '에피쿠로스'
 문학 : [현대시+고전시가] 2012.11 [31~36] '구두 한 켄레의 시, 산 너머 남촌에는, 북찬가'
 [고전소설] 2011.09 [21~24] '김원전'

DAY 3 042p

- 비문학 : [인문] 2018.06 [16~21] '율곡의 수기치인'
 [기술] 2011.11 [25~26] '소프트웨어 자료 관리'
 [사회] 2012.06 [16~18] '혁신의 확산'
 문학 :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추억에서'
 [현대시] 2018.06 [26~29] '고풍 의상, 결빙의 아버지'
 [현대소설] 2011.11 [40~43] '나상'

DAY 4 054p

- 비문학 : [예술+인문] 2011.06 [23~27] '회화적 재현'
 [과학] 2012.06 [47~50] '근섬유'
 [기술] 2012.11 [21~24] '음원'
 문학 : [현대시] 2018.11 [20~22] '강 건너간 노래, 묘비명'
 [현대시+고전시가] 2012.06 [19~24] '파초, 수철리, 견회요'
 [고전소설] 2012.09 [43~46] '육미당기'

DAY 5

066p

- 비문학 : [언어] 2012.09 [28~30] '중간 언어'
[사회] 2017.11 [37~42] '보험의 고지 의무'
[예술] 2012.06 [33~36] '연주'
문학 : [고전시가+수필] 2011.06 [39~43] '두터비 파리를~, 고공가, 어부'
[극문학] 2012.06 [37~39] '대장금'
[현대소설] 2012.11 [13~16] '돌다리'

DAY 6

078p

- 비문학 : [기술] 2011.06 [36~38] '연비'
[예술] 2012.11 [43~46] '기악'
[과학] 2011.11 [32~36] '그레고리력'
문학 : [수필+고전시가] 2012.09 [38~42] '수려기, 덴동어미화전자, 도산십이곡'
[현대소설] 2012.06 [25~28] '화산택이'

DAY 7

088p

- 비문학 : [과학] 2012.06 [29~32] '접합 소자'
[사회] 2020.09 [27~31] '점유'
[인문] 2011.09 [44~47] '공리주의'
문학 :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현대소설] 2011.09 [35~38] '잠시 눕는 풀'

DAY 8

098p

- 비문학 : [과학] 2011.06 [15~18] '사막'
[인문] 2019.06 [16~21] '서양 의학과 최한기'
[사회] 2012.11 [29~30] '외부성'
문학 :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나무'
[극문학] 2012.11 [37~39] '산허구리'
[고전소설] 2012.11 [25~28] '호질'

DAY 9

108p

- 비문학 : [수학] 2012.09 [21~23] '데카르트 좌표계'
[사회] 2011.09 [28~31] '환율&경상 수지'
[인문] 2019.11 [39~42] '가능세계'
문학 : [고전시가] 2017.06 [25~27] '동동, 가시리'
[현대소설] 2012.09 [13~16] '나룻배 이야기'

DAY 10

118p

- 비문학 : [인문] 2011.11 [17~20] '자산의 개혁'
[사회] 2012.09 [35~37]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술] 2018.11 [38~42] '부호화'
문학 : [고전시가] 2020.09 [16~20] '상춘곡, 고산구곡가'
[현대시] 2012.09 [31~34] '새 1, 어머니의 그릇, 노래와 이야기'

DAY 11

128p

- 비문학 : [사회] 2011.11 [44~46] '채권의 가격'
 [기술] 2017.06 [16~19] '인공 신경망 기술'
 문학 : [고전시가+수필] 2020.11 [21~25] '월선헌십육경가, 어촌기'
 [현대시] 2011.11 [13~16] '자화상, 선제리 아낙네들, 그 나무'
 [고전소설] 2011.06 [47~50] '낙성비룡'

DAY 12

138p

- 비문학 : [언어] 2011.06 [44~46] '한글&한자 표기'
 [인문] 2011.06 [13~14] '추론'
 [사회] 2020.11 [37~42] '말랑말랑한 법(soft law)'
 문학 : [현대시] 2011.06 [19~22] '강우, 성탄제, 서해'
 [고전소설] 2011.11 [47~50] '운영전'

DAY 13

148p

- 비문학 : [과학] 2017.09 [31~34] '열기관의 열효율'
 [인문] 2012.11 [17~20] '비트겐슈타인'
 [인문] 2012.06 [13~15] '원인 찾기'
 문학 : [현대소설+극문학] 2019.11 [21~26] '천변풍경, 오발탄'
 [현대시] 2018.09 [20~22] '플라타너스, 달'

DAY 14

160p

- 비문학 : [인문] 2012.09 [17~20] '진리'
 [기술] 2012.09 [47~50] '디지털 피아노'
 [과학] 2011.09 [19~20] '시간과 공간'
 문학 : [고전소설+고전시가] 2018.09 [33~37] '춘향전, 춘향이별가'
 [극문학] 2011.09 [32~34]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DAY 15

170p

- 비문학 : [예술] 2011.11 [21~24] '체계 이론 미학&뮤지컬'
 [과학] 2019.09 [29~32] 'STM'
 문학 : [고전시가 + 수필] 2011.11 [27~31] '상춘곡, 율리유곡, 범희문희서도원림'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DAY 16

180p

- 비문학 : [예술] 2011.09 [39~43] '음악&수학'
 [과학+인문] 2018.09 [27~32] '역학&논리학'
 문학 : [현대시] 2020.11 [43~45] '바람이 불어, 새'
 [현대소설] 2011.06 [28~31] '눈이 오면'
 [고전소설] 2012.06 [40~43] '심청전'



1.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요?

수능 국어영역 기출분석을 ‘제대로’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교재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P.I.R.A.M 국어 개념편” 혹은 “피램 국어 클래스”를 통해 공부한 학생이라면 교재나 강의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기출분석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2.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Daily 버전은 총 세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 2011~2012학년도 전 지문 + 2017~2020학년도 일부 지문

Part 2 : 2013~2014학년도 전 지문 + 2017~2020학년도 일부 지문

Part 3 : 2015~2016학년도 전 지문 + 2017~2020학년도 일부 지문

각 Day별로 난이도, 지문 길이, 제재, 글쓰기 방식 및 배울 점 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워지거나, 옛날 지문부터 훑고 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한 Day당 비문학 2~3지문 / 문학 2~3지문으로, 총 Day16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Day만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이틀에 한 Day를 푸실 수도 있고, 많이 풀어봐서 익숙하다면 하루에 2~3 Day를 풀어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출을 공부하는 걸 ‘습관화’ 하는 게 이 교재의 목표니까요.

과거 지문의 경우 너무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무언가 배울 점은 없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기출 분석은 결국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 이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유형이 변했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나의 수능 시험장에서의 무기를 찾고 다듬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재를 마무리한 후’ 부분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해당 교재의 형식으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편과 해설편을 따로 판매합니다. 복습시에는 문제편만 구매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공부법은 ‘습관화’ 입니다. 매일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해설지와 사고를 비교하는 걸 습관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 국어영역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3. 이 교재를 공부할 때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개념편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들 여쭙보시는 내용이기도 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① 수강생 카페 & 관련 강의에 대해

→ 제 교재를 선택해주신 분들의 국어 공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는 교재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가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QnA가 이루어집니다. 카페에 가입하신 후, 교재를 구매하셨다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해당 자료 및 QnA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해당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텍스트로 공부하는 데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저자 직강 인터넷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교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교재의 내용을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르비클래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piramgukeo>

강좌 페이지 : <https://class.orbi.kr/teacher/176>

② 시간 제한에 대해

→ 이 교재로 공부할 때는 굳이 문제풀이 시간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충분한 시간을 써서 고민하세요. 나름대로 지문을 읽을 때의, 그리고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뒤에 해설지를 보며 비교해 주세요. 문제만 빠르게 쓱 풀고 해설지를 보시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정말 처음 풀어보신다면 Day당 40분 정도의 시간을 재고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 실력을 알고, 보완할 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을 재더라도 그 뒤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복습해주셔야 한다는 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날 풀 분량은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③ 해설과 실전의 괴리에 대해

→ 이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해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해설은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제 해설만큼 읽어내고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고르는 과정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완전 똑같이 사고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상적인 상태로 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능날에도 그 이상에 그나마 가까운, 즉 답을 모두 골라내는 정도의 독해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이상적인 독해'에 다가가려고 최대한 노력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④ 생각합시다!

→ 이 교재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생각의 틀'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머리가 터질 듯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처음엔 '이걸 왜 강조하는거지?' 싶다가도, 생각하며 따라오면 결국 교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히 이해될 겁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실전적이고 필연적인 해설과 함께 수능 국어 영역 기출문제를 정복하러 떠나 봅시다.

P.I.R.A.M

생각의 틀 정리

기출문제집

1. 비문학(독서) 생각의 틀
2. 문학 생각의 틀

1. 비문학(독서) 생각의 틀

“P.I.R.A.M 국어 개념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개념편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겁니다. 개념편 교재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교재로 계속 공부하다보면 다 와닿게 될 겁니다. 일단 정리하고, 아래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해봅시다.

1) 미시적 요소 정리

① 사례-원리 연결

지문에서 사례가 등장한다면, 그 사례는 우리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례를 그냥 흘려 읽지 마시고 그 사례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와 확실하게 붙여서 ‘이해’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하라고 열심히 도와줬으니, 당연히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을 테니까요.

② 재진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여 훨씬 풍부하게 설명하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자세히 말해준다면 당연히 그 말이 중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 할 필요가 있겠네요. 위의 ‘사례-원리’와 함께,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정보입니다. 문제에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③ 특수한 상황 : 고정된 값, 예외

평가원은 언제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특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고정된 값’과 ‘예외’ 상황은 항상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둘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니까요. 어떤 값이 변하지 않는대거나,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예외’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④ 문제풀이 기본 태도 : 발문 확인,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문제를 풀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발문’입니다.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선지를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도, 문제를 풀 때도 가장 중요한 건 ‘해야 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니까요.

⑤ 문제풀이 : <보기> 정리하기

<보기>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보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새롭게 얻게 된 정보는 없는지, 지문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같은지, 사례가 제시된다면 지문의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등을 모두 정리한 뒤에 선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에게 보이는 모든 특이점을 정리한 뒤에 선지로 가야 합니다. 이 태도가 숙달 되시면 아무리 어려운 <보기>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2) 거시적 요소 정리

① 화제 & 정의 및 주장

수능 비문학 지문은 아주 논리적인 지문이기에, 한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 즉 ‘화제’는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이 ‘화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비문학 독해의 기본입니다. 항상 첫 문단을 읽고 나서, ‘화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맞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한 뒤, 각 문단마다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며 화제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정보량이 쏟아지더라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이 정보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 답은 대부분 ‘화제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지문 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딱 정리되도록, 그렇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감이 안 오더라도, 해설지를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화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개념의 정의’ 혹은 ‘사람의 주장’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 화제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만들어 둔 일종의 ‘배경지식’이기에,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읽어가도록 합시다.

② 글쓰기 방식 - 비교/대조

위에서 설명하는 ‘화제’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평가원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글쓰기 방식에 맞는 독해 방법을 익혀 두고 이용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비교/대조입니다. 비교/대조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방식입니다. 어떠한 대상이 비교된다는 느낌이 드시면, 바로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 개념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체크하다가, 각 대상이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무엇이 같은지/다른지 생각하며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내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각 대상이 비교되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볼 때 돌아올 수는 있도록 말이죠!

③ 글쓰기 방식 - 시간순 서술

비교/대조형 지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각 시대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변화 양상’입니다. 시간이 흘렀다면, 그동안 ‘바뀐 점’이 있을 것이고, 화제와 관련된 ‘바뀐 점’은 당연히 해당 지문의 핵심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④ 글쓰기 방식 - 문제해결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지문입니다. 어떤 대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그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what), 그 문제점은 왜 발생했는지 (why),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how)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해결책은 what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걸 아예 사용하지 않는 등) why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많으니, why를 생각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내용이 뒤에 등장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훨씬 풍부한 지문 독해가 가능할 겁니다!

DAY 1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0P

-2011.06 [32~35]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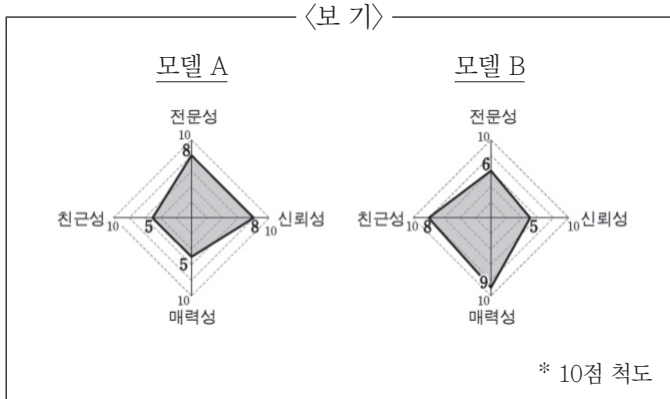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의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윗글의 글쓴이의 입장에 따라 <보기>의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효과를 예상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델 A가 특정 카메라 광고에 계속해서 등장할 때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모델 A가 자동차, 보석 광고 등에 중복 등장할 때 기대했던 만큼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③ 모델 B가 치약 광고와 여행 광고에 등장할 때 두 광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④ 초콜릿 광고의 경우 모델 A보다 모델 B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 공기 청정기 광고의 경우 모델 B보다 모델 A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윗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에 적합해야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② 유명인을 등장시킨 광고의 효과가 기대 이하여서 광고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광고 효과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 ③ 유명인 광고 모델이 현실에서의 비리나 추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광고하는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
- ④ 광고를 많이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동시에 할 경우 광고의 효과가 커졌다는 사례가 있다.
- ⑤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하면,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광고 횟수가 적어도 효과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4.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 ②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나온다.
- ③ 하루 종일 찾던 지갑이 세탁물 속에서 나왔다.
- ④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빨래를 못 했다.
- ⑤ 며칠 전 씨를 뿌린 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2P

-2011.09 [25~27]

* 필경사 :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분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A]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자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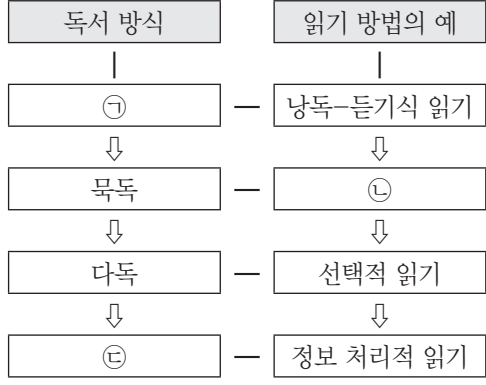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5.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① 음독 | 비판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② 음독 | 분석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③ 음독 | 분산형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④ 정독 | 분석적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⑤ 정독 | 비판적 읽기 | 분산형 독서 |

6.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 고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지녔다.
- ② 책자형 책의 여백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재독하는 등 읽기가 끊기는 현상은 낭독의 확산을 도왔다.
- ③ 묵독의 시대에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없었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과 관련된 책이 등장했다.
- ④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어형(語形)은 물론 절이나 문장의 배치를 빠르게 인식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⑤ 인쇄술의 보급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독자들의 요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었다.

7. [A]의 독서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모티콘, 구어체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현은 목록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돼.
- ② 텍스트를 잘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원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읽기와 쓰기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원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저작권법을 어기기 쉽겠어.
- ④ 기존의 종이 책이나 고문헌 자료들을 전자 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가 확장되었어.
- ⑤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

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10^{-9} m)에서 수 마이크로미터(10^{-6} m)인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이다. 응답 감도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 저항값(R_s)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서 측정된 저항값(R_{air})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는 감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한편,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정상 상태로 흡착돼 있는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탈착되는 데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흡착 :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가 달라붙는 현상.

* 탈착 :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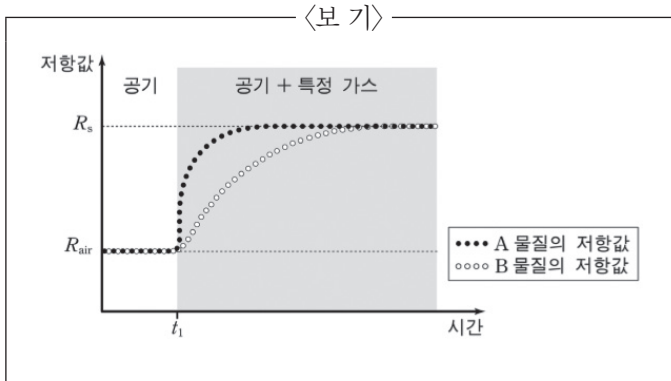
8. 잇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가스 흡착 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
- ② 인간은 후각을 이용하여 유해 가스 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회복 시간이 길어야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
- ⑤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의 탈착 전후에 변화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9.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 ② 체육 시간에 안정적인 자세로 물구나무를 서서 박수를 받았다.
- ③ 모형 항공기가 처음에는 맞바람에 요동쳤으나 곧 안정되어 활강하였다.
- ④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며 공을 던졌으나 50m 이상 날아가지 않았다.
- ⑤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 항상 분당 128~130회였다.

10. 산화물 반도체 물질 A와 B를 각각 이용한 두 센서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여 <보기>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 가스이다.
- ②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③ 응답 시간은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④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에는 공기 중에서 A와 B의 저항값이 같다.
- ⑤ t_1 직후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크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17P

-2019.06 [27~31]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는가.

모든 유흥(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
 는다 [A]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B]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는가 [C]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과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D]

저 약새들 ┌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E]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 배한봉, 「우포늪 약새」 -

* 약새 :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간 형깊은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었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

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온천행」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1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수필은 글쓰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쓰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쓰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20P

-2020.06 [16~18]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이 니게요. 며 내가 휘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내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짤라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든 빈손으로 우찌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 ㉠ 핑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겄소.”

“아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 겄소. 하지마는 두고 보든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 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돌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 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리요? 지내 놓고 보든 알 기니게요. 내가 며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 을 양이든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 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왓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벌어목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겄네. 날을 다가야겠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 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 지만 집집에선 인적이 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 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 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 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 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 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 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뺄 위로 날았다. 앞기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덴다. 서희 얼굴이 흠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 께 홍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B]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 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푹 멈춘다. 돌아본다. 흠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홍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드르고 한 소동을 피운 다. 읍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홍 씨는 겨우 본채로 돌아 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 야 우, 우찌 ……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오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 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 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 장으로 변한다.

“예? 며, 며, 머라 캄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바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 박경리, 「토지」 -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고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서희는 홍 씨에게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홍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홍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24P

-2011.09 [13~18]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별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다)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꿀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익, 「단가육장」 -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20.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서 있음.

21.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22.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관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23.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4.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 ② 2장
- ③ 3장
- ④ 5장
- ⑤ 6장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28P

-2012.11 [47~50]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쳐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려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책이나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 나갔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 ‘전자를 보는 것’은 ㉡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 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 ②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 ③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 ④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촬영 대상에 광양자를 쏘는 것이다.
- ⑤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2. 윗글에서 ㉠과 구별되는 ㉡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 ② 대상을 매개물 없이 직접 지각할 수 있다.
- ③ 대상이 너무 작아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 ④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 ⑤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정한 전압에 의해 가속된 전자 빔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자 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측정한 전자의 운동량은 ㉠ $1.87 \times 10^{-24} \text{kg} \cdot \text{m/s}$ 였다. 그 측정 오차 범위는 ㉡ $9.35 \times 10^{-27} \text{kg} \cdot \text{m/s}$ 보다 줄일 수 없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해 보니 이때 전자의 x축 방향의 위치는 ㉢ $5.64 \times 10^{-9} \text{m}$ 의 측정 오차 범위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 없었다.

- ①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이 ㉠이겠군.
- ② 전자의 질량을 알면 ㉠로부터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
- ③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보다 커질 수 있겠군.
-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 범위는 ㉡보다 커지겠군.
- ⑤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를 ㉢보다 줄일 수 있겠군.

4.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단위를 10개로 잡을 때 200개는 20단위이다.
- ② 수확량을 대중해 보니 작년보다 많겠다.
- ③ 바지 길이를 대충 재어 보고 샀다.
- ④ 운동장의 넓이를 가늠할 수 없다.
- ⑤ 건물의 높이를 어림하여 보았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30P

-2011.11 [37~39]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땀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그리고 ㉦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스’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6.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7.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 가락	㉠	가락연필	…… ①
	○ 빼빼하다 ○ 연필	㉡	빼빼한연필	…… ②
스캔하다	○ 읽다 ○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 ③
스파게티	○ 부드럽다	㉣	부드럽국수	…… ④
	○ 새콤달콤하다 ○ 국수	㉤	새콤달콤국수	…… 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33P

-2020.06 [19~22]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0.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한데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하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36P

-2012.11 [31~36]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쭉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열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A]

[B]

[C]

[D]

[E]

-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같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러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꿨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 영 : 고개.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찾아
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름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 꿈을 돌려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1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13.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 ⑤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5.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희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 [=존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 ① [A]: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 ② [B]: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여러 번의 수선을 거친 구두에는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있군.
- ④ [D]: 고향 텃밭의 허름함과 흰 구두를 비교하여 초면과 구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군.
- ⑤ [E]: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낯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16.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17.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흥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붕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흥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털게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①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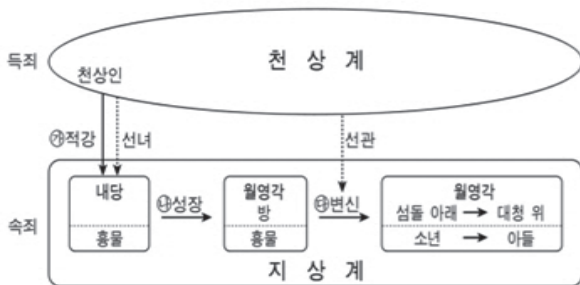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흉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19번과 2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윗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흉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라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1.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팔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44P

-2018.06 [16~21]

유학은 ㉠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2.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3.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4.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5.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현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러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48P

-2011.11 [25~26]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1000:	백두
1001:	설악
1002:	지리
1003:	한라
1004:	
	⋮

<그림 1> 배열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다음 포인터
1000:	백두	1008
1002:	Ⓐ	Ⓑ
1004:	지리	1006
1006:	한라	----
1008:	설악	Ⓒ1004
		⋮

<그림 2> 연결 리스트

㉡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은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와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 포인터' 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
- ② 자료 접근 과정은 사용하는 자료 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 ③ '배열'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
- ④ '연결 리스트'는 저장되는 전체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할 때 편리하다.
- ⑤ '이중 연결 리스트'의 한 저장소에는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8. ㉠~㉣에 대해 <보기>의 실험을 한 후 얻은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 <보 기> —

동일 수의 자료를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차례로 실행하였다.

* 단, 충분히 많은 양의 자료로 충분한 횟수만큼 실험을 하되,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자료의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함.

- ① ㉠은 ㉡에 비해 삭제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②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③ ㉡은 ㉠에 비해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④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⑤ ㉣은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혁신의 확산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리학에서는 혁신의 확산이 시공간적인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 과정을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설명한다. 혁신의 발생기에는 혁신 발생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면, 먼 지역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확산기에는 초기의 혁신 수용 지역에서 먼 지역까지 혁신의 확산이 일어난다.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진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된다. 혁신 발생원과 잠재적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혁신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전염 확산이다. 발생원과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면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혁신의 확산이 ㉠ 대중 매체보다 주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계층 확산이다. 계층 확산에 의해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령 거대 도시에서 발생한 혁신은 먼 거리의 대도시로 전파되면서 동시에 거대 도시 주변의 중소 도시에도 전파될 수 있다.

혁신의 수용자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혁신 수용자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는 개별 수용자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 즉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소수의 혁신자, 일정 기간 심사숙고하여 혁신을 수용하는 다수의 전기 수용자,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가 그것이다.

9. 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의 수용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 ②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혁신의 수용자 중에는 소극적인 수용자들도 있다.
- ④ 수용자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 ⑤ 심화·포화기의 수용률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10.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신 미용 기법이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주로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을 통해 전파되었다.
- ② 새로 출시된 금융 상품의 가입자가 경제 뉴스가 아닌 직장 동료들의 추천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다.
- ③ 신개발 농산품의 구매자 수가 증가한 것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 소문에 의한 결과였다.
- ④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 폭주는 주 고객층에 초점을 맞춘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의 결과였다.
- ⑤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한 전문 식당의 분점이 급속히 퍼진 것은 라디오 광고보다 주로 손님들의 호평 덕택이었다.

11. 밑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서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

— <보 기> —

- ㄱ. 한 미술관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은 혁신 확산의 예이다.
- ㄴ. 거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로 전파된 것은 계층 확산의 예이다.
- ㄷ. 대도시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전화기가 이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것은 전화기의 확산이 심화·포화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 ㄹ.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전기 수용자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52P

-2019.09 [16~20]

(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흐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은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흐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흐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흐니 버리면 구태 구흐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흐니 오라 말라 흐노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흐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 / 드래랑 / 떡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 들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5.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16.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구율에 따라 '오'를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56P

-2018.06 [26~29]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춧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곶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후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 부연(附緣): 긴 서까래 끝에 덧없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 호장: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형겜으로 꾸민 것.

* 초마: '치마'의 방언.

17.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8.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19.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0.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얽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팡 팡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래기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59P

-2011.11 [40~43]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 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지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겠이야이.”

㉡ “……”

“난 원래 다리에 ㉢ 담즙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해죽이 웃었다.

㉣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출다.”

㉤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야이.”

㉥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견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곁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깥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건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들

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

2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2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 ②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 ④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3. 윗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고자 할 때, ㉠~㉣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② ㉡에서는 ‘놀라 돌아다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에서는 춤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④ ㉣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에서는 ‘부러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24.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④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 준다.

***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르비클래스’에서 국어 영역 ‘김민재(피램)’ 강사의 강의 중 ‘수능 국어영역, 제대로 된 기출분석법’ 강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 16일간, 혹은 본인이 약속한 시간동안 빼먹지 않고 꾸준히 이 교재를 풀었다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썼든, 몇 문제나 틀렸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교재 한 권을 끝내는 동안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되었는지 등을 정리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교재의 해설지 등을 통해 나름대로 ‘생각의 틀’을 갖추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인 ‘기출분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책 한 권 다 끝냈더니 ‘시작’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출분석은 수능 전날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수험생도, 심지어 이 교재를 집필한 저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거든요. 기출은 볼 때마다 새롭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기출분석은, 아무런 ‘생각의 틀’ 없이 스스로 하기엔 너무나 막막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재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해설지에 적혀 있는 일관된 사고과정들을 통해 기출문제를 대하는 ‘생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과정을 잘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기출분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지의 도움이 아닌,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하는 기출분석 말이에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시점이 기출문제집 Part 3까지 모두 출판된 상태라면, 일단 Part 2와 Part 3도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 10개년 전 지문을 풀고 생각하는 과정부터 거쳐야 나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Part 2 혹은 Part 3가 출판되지 않은 상태라면, 나머지 파트의 출판을 기다리면서 Part 1 부분부터 스스로 기출분석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새로운 문제지가 필요합니다. 이 교재는 문제편과 해설편을 따로 판매하고 있는데, 문제편만 새로 구매하셔서 시작하셔도 좋고, 스스로 기출문제를 인쇄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해설지의 표시들

① 난이도 표시 (별 개수)

[1~4] ☆☆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지문마다 난이도를 표시해두었습니다. 각 Day마다 이 난이도도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했습니다. 실제 정답률과 제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 당시의 반응 등을 종합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의 주관에 가까운 부분이니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 별 개수는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부여됩니다!

② 지문의 표시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 제가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을 구현한 것입니다. 각 부분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문학 해설)

굵은 글씨 : 동그라미 치는 부분 (보통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사용)

밑줄 : 밑줄 치는 부분 (개념의 정의, 사람의 주장, 글의 화제, 핵심 정보 등 중요한 내용)

< > : < > 치는 부분 (밑줄 치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놓치긴 아쉽고, 그렇다고 외우거나 이해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부분)

문학 해설)

굵은 글씨 + 밑줄 : 동그라미 혹은 밑줄 치는 부분 (상황, 반응, 인물 관계, 시공간 등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들)

현대어 풀이 : 고어로 된 고전시가의 경우 현대어 풀이를 적어두었습니다. 다만 이 해설지의 컨셉에 맞게, 100% 정확한 해석이 아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읽은 정도에 해당하는 풀이입니다. 심지어 틀린 풀이도 있지만, 이렇게 읽어도 문제를 푸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구성을 취해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문에 저런 표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와 표시를 하는 부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저 부분들에 왜 표시를 하는지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저의 머릿속 사고과정이 녹아있는 부분이니깐요. 저 표시들은 저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사고과정을 훑쳐 보세요.

③ 문단 해설 & 문제 해설

→ 매 문단마다, 선지마다 해설이 달려있습니다. 문단 해설은 단순한 문단 요약이 아닙니다. 그 문단을 읽으며 해야 할 생각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생각들을 조합하면 결국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여러분은 그 정리된 내용이 아닌 그렇게 정리하기까지의 '생각의 과정'을 살피셔야 합니다.

문제 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몇 문단 몇째 줄에 근거가 있다는 식이나 결론, 시어에 대한 해석 등만 정리하는 사후적인 해설은 지양합니다. 실제 제가 선지를 보고 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그 선지를 처음 봤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역시 답이 '왜' 4번인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4번을 고를 수 있는지, 그 사고 과정에 주목하세요.

④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한 지문의 마지막엔 항상 이런 칸이 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국어의 시작은 어휘력입니다. 지문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은 모두 스스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기출된 단어들은 평가원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 수준의 어휘'에 해당하니까요!

⑤ 선지 선택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8%	9%	40%	7%	6%

→ 문제마다 선지 선택률이 실려 있습니다. 정답은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내가 고른 답이 위 문제의 1번 선지처럼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면 왜 그 선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되었는지, 5번 선지처럼 많이 고르지 않은 선지를 골랐다면 내 사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생각하시면 훨씬 풍부한 공부가 될 겁니다. 기출문제의 선지 선택률은 해당 문제가 수능에 나왔을 때 내가 고를 수도 있는 선지를 보여주는 좋은 도구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죠?

⑥ FAQ

<p>*FAQ*</p> <p>Q : 사고 작용이 지각 활동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p> <p>A : 이 지문에서 신기 혹은 ~</p>
--

→ 출판 첫해, 교재 구매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 무려 2,000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고, 답해드렸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헛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교재에 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그 내용, 미리미리 답변드립니다. 간혹 FAQ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한 내용이었다고 해도 꼭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⑦ 뒷북 해설

뒷북 해설

이 선지는 '채권의 현재 가치' 라는 개념의 정의를 대충 체크한 학생들을 ~

→ 가끔씩 이렇게 '뒷북 해설' 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뒷북을 치는 해설입니다. 시험장에서 생각해내기는 조금 힘들지만, 생각이나 추론이 미친듯이 잘 되는 경우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 스스로 해내셨다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시험장에서 해내지 못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부분이니 이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꼭 읽고 정리하기는 해주세요. 어쨌든 그 지문을 '분석' 하는 관점에서 아주 좋은 공부 도구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쓰고 검토한 해설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적극적으로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편과 해설편 모두 맨 뒤쪽에는 '빠른 정답' 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기 전 채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인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을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될 행복의 양들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공리주의에 대한 지문이네요. 공리주의의 정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생각하면 되겠죠? 결과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평주의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면서, 이들이 모두 '공리주의'의 정의라는 것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요소마다 재진술까지 해주면서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리주의의 정의를 이해시켰으니, 당연히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은 더 위험하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쭉 설명할 줄 알았더니, '반공리주의자'를 제시하며 비교/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체크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반공리주의자의 주장은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한다'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우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민우의 예시 상황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 이 예시가 결국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해 나왔다는 것까지 생각해보시면 정말 베스트겠네요. 그러면 서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을 '공리주의'의 정의를 바탕으로 미리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B의 무고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복하게 하겠죠.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니까요. 반공리주의자는 이런 '정의 배제'를 근거로 공리주의자들을 비판하는거죠. 공리주의자에 따르면 B의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와 붙여서 이해한다!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잘 실천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뒷북 해설

만약 이 지문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 부분을 없애면 됩니다. ㉠ 부분의 물음은 이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민우의 예시를 읽다가도, 무려 밑줄까지 쳐주면서 '공리주의의 답'을 물어보고 있으니 '반공리주의자의 비판'이라는 지문의 흐름을 다시금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밑줄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민우의 예시'를 '반공리주의자의 비판'이라는 원리와 붙여서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의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삭제되고 있다는 점, 최근의 경향 중 하나예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이 정보는 왜 나왔는지"를 집요하게 체크하면서 읽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을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대응을 해야겠죠? 그 대응 중 하나가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규칙 공리주의'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주장이라고 합니다. 규칙 공리주의자들의 주장, 즉 '정의'를 체크하면서 그것이 결국 '정의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말로 이어진다는 생각까지 해주셨으면 굿입니다! '공리주의 → 반공리주의 → 규칙 공리주의'라는 지문의 흐름

잡아두고 문제 풀어봅시다. '재진술' 과 '예시' 의 쓰임도 꼭 체크해주시구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7%	8%	6%	4%

- 일단 늘 하던 대로 발문과 <보기>부터 정리해 봅시다. 갑은 운전자를 도왔고, 친구를 돕지 않았습시다. 이런 팩트 정도만 정리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발문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선한다고 평가' 했다고 했으니 왜 그런지를 미리 생각하고 가면 더 굿이겠죠? 전통적 공리주의는 '결과'가 중요하고, '행복의 양'이 중요하며, 모든 행복의 우열을 따지지 않는 '공평주의'입니다. 그럼 갑이 운전자를 도울 때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운전자를 도왔을 때 '행복의 양'이 더 크다고 생각했으며, 운전자와 친구의 행복을 동일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비교한 것이겠죠? 이렇게 발문과 <보기>를 연계하며 위의 내용들을 미리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태도는 킬러 <보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 꼭 체크합시다.

- ① 행복의 양 증가! 우리가 미리 생각한 전통적 공리주의의 핵심이죠?
- ②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의 양을 고려한 것이죠! 운전자가 살아난 건 분명한 행복이고, 이 행복의 양까지 고려한 것이 갑의 행동이라는 게 전통적 공리주의의 주장이죠.
- ③ 행복에 대해 우열을 가리지 않는 공평주의! 우리가 미리 정리한 <보기>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 ④ 더 많은 행복!
- ⑤ 결과주의!!

오답 선지들의 내용이 어디서 뽕뽕 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정리해둔 <보기>에서 나왔다는 것, 확실하게 체크합시다.

11.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2%	56%	6%	21%

-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문에서 미리 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원리와 연결 짓는 것은 기본이기에, 민우의 예시를 '전통적 공리주의'에 맞춰서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행복의 양을 최대화해야하기 때문에, 민우는 B 집단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할 것입니다.

사실 나머지 선지는 안 고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택률이 높았던 2번 선지와 5번 선지만 살펴 봅시다.

② 이 선지를 고른 학생들은 그냥 착한 학생들입니다. B 집단의 무고한 사람이 불쌍한데,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조용히 하고 있겠다는 거죠.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본인 생각을 고른 케이스입니다.

⑤ 이 선지를 고른 학생들은 '전통적 공리주의'의 정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거죠. 진실을 증언하면 더 큰 유혈사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최대치로 올려야하는 공리주의에서 그럴 리가 없겠죠. 아마 뒤에 나온 '규칙 공리주의자'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을 텐데, ①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을 확실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발문 체크도 기본이었구요!

12.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4%	7%	9%	74%

- 역시 발문과 <보기>를 정리해 봅시다. '의무론자'라는 새로운 입장이 제시되고 있네요. 이들은 '결과'를 중시하는 규칙 공리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요. 자연스레 지문의 '규칙 공리주의'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보기> 문제 풀이의 시작은 <보기> 정리, 즉 지문과의 대응에서부터 시작한다!

- ① 규칙 공리주의 역시 공리주의의 일종입니다. '결과'를 중시할 거예요.
- ② 의무론자는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③ 의무론자는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④ 의무론자가 규칙의 절대성을 따지는 건 맞는데, 규칙 공리주의가 정의를 배제한다구요? '규칙 공리주의' 라는 정보는 공리주의가 정의를 배제한다는 '반공리주의자의 비판' 으로부터 공리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역할' 을 생각했다면 규칙 공리주의자 역시 정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왜 나오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⑤ 결국 정답은 '결과' 라는 둘의 차이점에서 도출되고 있는데요. '비교되는 경우 그들의 공통점/차이점을 인식한다!' 기본이라는 거 아시죠?

1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3%	2%	87%

쉽지만, 배울 것이 정말 많은 지문이었습니다. '재진술' 과 '예시' 에 대한 이야기, '정보의 역할' 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챙겨가도록 합시다.

[14~16] ☆☆

16번 문제의 <보기>는 단순히 다른 지문이니, 15번 문제의 <보기>를 확인해봅시다.

— <보 기> —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모습을 다 모아둔 내용이네요. 자연이 좋다는 내용과 임금님을 보고싶어 하는 내용 기대하면서 지문 읽어봅시다.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 산촌에 눈이 오니까 돌길이 못쳤다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 시비(사립문)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 누가 있나
밤둥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흐노라
 → 밤중에 뜨는 달이 그 벗인가 한다
 <1수>

(나)
 셋그래 기나 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 서까래 기나 자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 초가집 작다고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닉 거신가 흐노라
 → 산, 달이 다 내 것 같다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새를 아라 피엿거든
 → 무정한 꽃도 때를 알아서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논고
 → 어찌자고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17수>

(라)

어젯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피었다
→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림(水晶簾)을 거더 두고
→ 연못가에 수정림을 걸어 두고

늘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푸러 흐노라
→ 누굴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낼까

〈18수〉

(마)

창(窓)밖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 창밖에 바스락바스락 님인가 이렇게 보니까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슨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이 무슨 일이나

어즈버 유한한 간장(肝腸)이 다 끈질까 흐노라
→ 유한한 간장(창자)이 다 끊어질까 한다.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산촌’에서 자연을 벗삼아 있는데 임금님도 그리운, 〈보기〉에서 예상한 내용 그대로네요. 제가 읽은 만큼만 가볍게 읽어 주시고, 시간의 변화 (눈→봄빛)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14.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76%	11%	4%

① 문답이요? 중장에서 물어보고는 있는데,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아요. 허용할 수 없죠.

② 과거가 대체 어디있나요?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어요.

③ 앞에서는 비 온 봄의 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엔 우리 님 어딴냐며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④ 심리적 변화요? ‘시름’이라는 반응 말고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요? 역시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리, 태도의 변화는 정말 엄밀한 근거없이 허용하기 어려워요.

⑤ 딱히 의인화한 모습도 없고, ‘점층적’이라는 말도 허용하기 어렵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5.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5%	10%	75%	6%

① 응? 〈보기〉에서 분명 정계에서 밀려났다고 했어요. 은거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② ㉓는 ‘자족감’, ‘자극심’이라고 해놓고 답답한 심정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③ ‘만산 나월’은 그냥 자연이 좋다는 이야기죠. ㉔와 관련된 시어라고 볼 수 없죠.

④ ‘봄빛’이 퍼졌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님’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으니, ‘님에 대한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⑤ ‘부용 당반’이 ㉔와 관련된 시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낸다구요? 이걸 지문의 상황을 싹 무시한 선지네요.

16.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	6%	75%	10%

〈보기〉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너겨 풀썩 니러나 **썩** 짝 나서 보니

→ 벽사창이 어른어른해서 님이라고 여겨 풀썩 일어나 똑딱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흔디 벽오동(碧梧桐) 저즌 님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노래에 너혀 두고 슬금슬적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 님은 아니고 명월이 만정한테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앉아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날개에 넣어 두고 슬금슬적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

모처럼 밤일식만정 행여 낮이런들 늙 우일 번혀여라
→ 모처럼 밤이라서 다행이지 행여나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

- 작자 미상 -

- (마) 부분과 유사한 ‘착각 모티프’가 사용된 작품이네요. 자주 사용되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님이 오는 것 같아서 혈레벌떡 나갔는데, 님이 아니라 봉황의 그림자였다는 내용이에요. (마)는 님인 줄 알았던 대상이 낙엽이었죠? 이 정도 잡아주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마)에서는 ‘워섹버섯’이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보기>에서는 ‘어른어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워섹버섯’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소리라는 느낌 정도는 왔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오는 ‘낙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구요.

② 창밖에 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있죠? 허용할 수 있네요.

③ 네 그렇죠. (마)는 낙엽, <보기>는 봉황!

④ (마)의 중장에서 낙엽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데, <보기>의 중장에 대상에 대한 ‘비판’이 있다구요? 그냥 봉황이라고 했지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허용하면 안 되겠죠.

⑤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고 했으니 내면적 고통을 허용할 수 있겠고, <보기>에서는 ‘남 웃길 뻔했다’고 했으니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시가를 공부했다면 말이죠!

[17~20] ☆☆

— <보 기> —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약의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보기>가 굉장히 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읽기도 전에 지문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사건 조작 모티프’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다룰 거예요! 어떤 사건이 조작되어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줄지 알아보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 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깐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뱉으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여게끔 행동하란 말이예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처음부터 대화로 시작합니다. 딱 봐도 부조리한 상황이 그려지죠?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보기>에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걸 알려 줬으니까요! 지금 ‘사모님’, ‘부사장님’, ‘저’ (이 선생)라는 인물들이 ‘운전수네’와 ‘시우 군’이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고 있나 봐요. 부사장이라는 인물은 말을 만들어내며 이 사건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선생은 그 와중에 이 말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해야겠죠? 그냥 뭐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혹은 가식적인 모습이 우스워서 등등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셨든, 중요한 건 이렇

계 심리와 행동의 근거를 생각하며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종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행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 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에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종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아이고 그 와중에 시우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인데, 종우 형이 돈 더 받았으니 좀만 고생해달라며 울고 난리가 납니다. 시우는 결국 울다가 감옥 생활을 잘 견디겠다고 결심하고 있네요. 내용 팍팍 들어오시죠?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 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젤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햇수로 일 년 넘기는 건데, 헤헤. 그렇게 햇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풋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커먼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울숙이도 내년이면 맞춤중학 교복을 입고 뽀넬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면,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관 봐여.”

- 김원일, 「잠시 늙는 풀」 -

자 이제 ‘오늘 아침’ 감옥으로 가는데, (오늘 아침이라는 걸 봐서 지금까지는 모두 과거 이야기였네요.) 뭔가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동료 죄수들도 보고... 형이 차릴 가게도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시우는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왜? 자기만 고생하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 웃음소리는 죄수들이 듣기엔 웃는 게 아닌가 봅니다. 돈 때문에 감옥살이를 대신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사건 조작, 부조리한 현실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17.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5%	4%	4%	80%

① 의식의 흐름이요? 일단 없습니다. 또한 의식의 흐름처럼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무질서한 생각의 흐름을 나열한 것인데, 이 기준이 많이 애매하죠.)은 적절한 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FAQ

Q : 지문 후반부에 눈, 산타클로스 등이 나오고 하다가 갑자기 가게의 모습이 나온다가나 하는데 이걸 의식의 흐름으로 보기 힘들까요?

A : 의식의 흐름은 정말 무질서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 공부하기 싫다. 근데 집에 청소 안 했는데 괜찮나? 그리고 보니 내일 아이유 콘서트 티켓팅이네 피시방 가야겠다. 가서 티켓팅하고 오버워치 해야지. 아 맞다 여기라면 맛있는데...' 뭐 이런 거죠. 생각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는 '눈'이라는 연결고리가 '산타클로스'를 연상케 하고, 이게 연상시킨 '크리스마스'가 가족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등 나름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보기 힘든 거예요.

② 외양 묘사요? 우리는 사람의 외양 묘사에는 주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물'의 외양 묘사라고 하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없어요. 네..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하기 힘든 선지들은 우선 넘어가는 태도를 갖추셔야 합니다. 시험장은 그리 여유로운 곳이 아니에요!

③ 애초에 감옥으로 가는 것 정도 제외하면 장면 전환 자체가 별로 없죠? 긴박한 분위기도 허용하기 힘들구요. 지금 지문의 상황 자체가 조작도 다 끝난, 긴박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니깐요.

④ 삽화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문은 '시우'와 관련된 사건 조작이라는 한 가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⑤ 서술의 초점은 '시우'라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아무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18.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2%	6%	3%	85%

① 내용을 이해했다면, 즉 인물의 성격, 심리, 행동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사장은 사건을 조작하면서도 시우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기만적인 인물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감옥을 가는데.. 희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③ 따뜻한 곳으로 오라며 시우를 부르는 죄수가 있으니, 다른 죄수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말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네요.

④ 사무장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부사장과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전부 내용이해를 묻고 있어요.

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미안해하고, 같이 울고 그러나요? 시우에게 버텨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이 떨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하네요.

19.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	76%	6%	8%

- 문제에서 묻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③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와 관련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③의 결과로 시우는 감옥 생활을 잘 버텨보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풀어봅시다.

① 집 안방! 감옥이 집 안방처럼 느껴지는 건, 시우의 '다짐했다'는 심리 때문이겠죠?

② 역시 죄수의 얼굴이 다정하게 보이는 건 감옥 생활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우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해도, 이 선지를 허용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③ 뜻말? 뜻말은 그냥 죄수들이 지은 죄를 표시하는 부분이죠. 딱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도 아니구요. 시우의 심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④⑤ 역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시우의 감옥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고자하는 심리 덕분이죠? 쉽게 허

용할 수 있습니다.

20.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1%	12%	10%	7%	50%

① 이 선지의 선택률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얼마나 생각없이 지문을 읽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에요. '말 웃음소리' 뒤에 나온 죄수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냥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만 해도 이 선지를 고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족들이 잘 살아서 즐기는 한데, 자신의 처지가 불쌍한 그런 복잡한 심경.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감옥 생활이라는 굴욕적인 현실을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백암 상회' 라는 것을 토대로 견디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③ 비판적으로 보니까 조작 모티프를 사용했겠죠.

④ 역시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사모님은 사건을 조작해서 시우를 감옥에 넣은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말한 배려는 결국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시다.

⑤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이요? 면회소는 종우 형이 시우를 면회 오는 곳이고, 신흥 주택 지대는 종우 형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가게를 차릴 곳을 모색하는 공간입니다. 둘 다 종우 형이라는 억눌린 사람과 관련된 공간인데, 공간적 대립을 허용하는 건 말도 안 되겠죠.

[1~4] ☆☆☆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물어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이 글의 화제와 직결될 것이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오’ 겠죠.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던 ‘특수한 상황’ 과도 관련 있는데, 평가원은 이렇게 항상 상식적이지 않은, 무언가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지문을 쓰고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 가 ‘상식적인’ 사막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특이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싶어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온대 사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 주고 있고, 사막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이고, 저위도와 중위도에 주로 분포하는 것.’ 이 정의를 체크하시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상식적인’ 사막과는 약간 다른 ‘특이한’ 정의니까요. 그럼 이제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사막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먼저 저위도의 사막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애들은 북회귀선,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있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 만들어졌고, 열대 사막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기억하는 건 힘들겠고, 그냥 저위도의 사막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만 해주고 넘어갑시다. 지금 내가 ‘저위도의 사막’에 대해 읽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이번엔 중위도 지역의 사막들입니다. 애들은 저위도의 사막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일단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해양의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형성되었고, 타클라마칸 사막은 해양과 차단된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위치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공기 중의 수분 손실’이 중위도 지역 사막의 형성 요인이구나~ 정도는 생각해주시어야 합니다. 사막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이 된다고 해요. 사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꼭 설명해주는 지문이네요.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가나 싶었는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 (아따 길다..)에서 습윤 환경의 화석이 발견된 것 이래요. 음... 건조한 지역인데 왜 습한 환경의 화석이 나왔을까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고 있다면 이런 물음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답으로 ‘지각 변동’

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원래 습한 곳이었는데 지각 변동으로 건조 지역이 된 거죠! 이것 증명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생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티베트 지역도 융기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쁘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결론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즉, 이 정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사막의 형성에 지각 변동이 관련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정보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정보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만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돌아와서 확인해도 되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막의 형성’에는 대기 대순환, 지리적 위치, 지각 변동 등의 요인이 관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지문이네요.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처럼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막의 형성 과정만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어요. 저위도의 사막, 중위도의 사막, 지각 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사막! 이렇게 세 가지 사막들을 예시로 ‘사막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 생각하면서 문제 풀러 가 봅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1.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9%	3%	74%	2%

① 절대 고를 수 없는 선지죠?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던 부분입니다.

② 타클라마칸 사막이 ‘온대 사막’ 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을 생각하기만 했으면 끝나는 선지입니다. ‘온대 사막’은 고지대,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이고, 타클라마칸 사막은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막입니다. 당연히 온대 사막이겠네요!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헤맬 수밖에 없는 선지였어요. 온대 사막이 어디있는지, 타클라마칸 사막이 어디있는지 자체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이 온대 사막인가?’를 묻고 있다는 걸 파악한 순간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가 명확해지네요.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③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네 끝.

④ 진짜 별로인 선지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막’이 어디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사막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을 테니 1문단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 한다고 했습니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도 딱히 얘기해주지 않았고, 4번 선지에선 저위도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틀린 선지입니다. 네.. 별로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지문에 없는 내용이라 알 수 없다는 거죠. 6평이라 나오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해양과 차단되었다는 ‘지형적 특성’, 대륙 한가운데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했네요.

2.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3%	80%	2%	5%

ㄱ. 탄소 동위원소 분석 ‘뿐만 아니라’ 고지자기 측정이라는 것도 했으니 추가적인 증거 맞네요.

ㄴ.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 사막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ㄷ. 다른 가설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ㄴ과 ㄷ을 고르신 분들은 그냥 ‘기존의 이론’ 같은 말만 보고 뭐 다른 거 나왔겠지 ~ 정도의 생각을 하셨을 텐데, 모든 선지는 대강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통해 정확한 근거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ㄹ.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이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고 했으니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는 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3.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7%	3%	21%	2%	7%

- 이 문제는 아무 생각없이 풀면 지저분한 문제, 평소 문제를 푸는 태도를 잘 갖춰두고 있었다면 아주 훌륭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푸는 태도 그대로 해 봅시다. 발문을 확인해보니, ‘㉠의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은 호주 대륙의 지각 변동 이후에 해당 지역의 사막 형성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밀줄의 근거를 보며 어떤 요인으로 인해 사막이 형성되었는지를 봐야하겠네요! 밀줄 근거를 봐도 뭐 별다른 요인 이야기는 없는데...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말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이 지문이 저위도, 중위도라는 ‘위치’에 따라 사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이 호주의 사막들은 ‘저위도’에서 형성되는 사막들이었습니다. 그럼 저위도의 사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봅시다. ‘대기 대순환’이네요. 답은 1번.

이 문제는 이러한 ‘사고 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근거만 찾다면 아주 별로인 문제입니다. 밀줄은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근거는 2문단에 있으니까요. 뭔가 괜히 어렵게 만들려고 꼬아 낸 문제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문제는 밀줄 문제는 밀줄 근거를 봐야한다는 행동 양식, 지문을 읽을 때 화제의 흐름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행동 양식, 문제에서 묻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행동 양식 등을 이어가는 사고 과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문

제였습니다. 단순히 “2문단에 근거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2문단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 사고 과정을 꼭 얻어 가세요.

사실 나머지 선지는 아예 고르면 안 됩니다. ‘대기 대순환’과 비슷한 말이 아예 없잖아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3번 선지를 고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호주 사막이 위에 나온 애들이랑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유사한 측면이 뭔지는 모르겠고.. 위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데, ‘오잉 히말라야 그거 겁나 높은거 아니어?’ 하면서 3번에 체크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푸셨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선지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FAQ

Q : 그래도 호주 대륙의 사막이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했으니 위의 사막들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맥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A :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은 ‘지각 변동’에 해당합니다. 이 ‘지각 변동’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호주의 사막들은, ‘지각 변동’에 의해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같은 지각 변동은 이미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저위도’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정말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것이 공통 요소라고 하더라도 히말라야 산맥은 ‘지각 변동’의 결과이고 이게 사막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히말라야가 높아서 사막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3%	3%	89%	3%